

취임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13대 원장으로 취임하게 된 최금숙입니다.

1983. 4. 21. 개원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오늘날 이렇게 발전한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은 직전 원장님이신 김태현 원장님을 비롯한 역대 원장님들과 전·현직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많은 자문위원들의 공로로 생각합니다.

오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으로 취임하게 된 저는 몹시 설레고 기대하는 마음도 큼니다만, 한편으로는 연구원을 어떻게 잘 운영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우리나라의 여성정책에서 차지해온 비중과 그동안 여러분들의 업적을 생각할 때 걱정보다는 기대가 훨씬 더 큼니다.

앞으로 진정 중요한 것은 우리 연구원이 '여성정책'에 관한 연구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얼마나 잘 할 수 있느냐 일 것입니다. 여성문제가 여자들만의 문제는 아니며,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여성문제를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 사회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임을 널리 인식시켜 남녀 모두가 여성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성문제는 이제 정책제시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연구와 그 결과를 토대로 양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구체적이고, 세밀한 청사진을 그려 국회나 정부부처나 국민들 앞에 내놓아야 할 단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청사진을 세상에 내어 놓느냐에 따라 우리나라 여성정책의 방향이 제대로 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청사진에 따라 미래의 우리나라 국력이나 국력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연구원을 세계적인 '여성정책' 연구원으로 만들어야 하겠고,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정책도 필요하며, 고령 여성, 북한이탈여성, 다문화 이주여성, 장애인 여성들을 위한 여성정책 연구도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연구원의 큰 성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즉, 연구원은 그동안 성인지예산, 성별영향평가, 성인지통계 등을 통하여 성평등의 국격 제고를 위한 정책기반을 다져 왔습니다. 이제는 각각의 제도가 정책적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강화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여성·일·가족의 조화를 위한 연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여성의 직업, 여성의 인권 및 권익보호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모성보호입니다. 요즘 많은 여성들이 임신, 출산, 육아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모성보호는 여성과 일과 가족의 연계를 통해서 연구할 때에 보다 현실적이며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연구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연구 속에서 저출산 해소방안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고, 30대 여성의 고용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며, 중고령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전업주부 등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한 연구가 시급합니다.

둘째로는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문화이주여성 및 북한이탈여성 등을 위한 연구를 강화할 것입니다. 최근에 다문화 이주여성과 북한이탈여성이 증가하고 있고 향후에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들이 대한민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여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장애여성들을 위한 연구도 사회통합에 필요한 영역입니다.

셋째로는 대내외적으로 소통을 강화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연구원은 대내적으로 소통을 통하여 협력을 강화하며, 대외적으로는 연구원의 여성정책연구의 현장성과 실효성을 위하여 산학연의 협력, 국회와의 소통, 여성가족부등 중앙정부와의 소통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기업과 소통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할 것이며, 종교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현실적으로 연구원의 연구에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때입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국제교류 및 협력을 통한 연구 강화가 요구되는 때입니다.

저는 제13대 원장으로서 전·현직 임직원들의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직원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여기,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함께 하는 시간들을 보람 있고 행복한 시간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다함께 열심히 협력하고 노력하고, 서로를 응원해 주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8월 16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최금숙